

# ‘고전’을 향해 흘러야 할 청계천, 콘크리트와 철골에 대한 저항

콘크리트와 철골은 현대 건축물의 역사를 바꿔놓은 ‘획기적인 발명품’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콘크리트와 철골 건축물 때문에 ‘고전 건축물’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콘크리트와 철골의 자연 수명이 일백 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20세기 서양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일컬어지는 르 코르뷔지에의 경우, 그는 콘크리트를 잘 구사하여 대가 반열에 올랐지만 콘크리트로 지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건물은 헐려 나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건축학자 임석재 교수(이화여대)는 《현대건축과 뉴 허머니즘》(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에서 이런 논지를 통해 고전을 남기지 못하는 기계문명을 비판한다. 역사에 대한 정신사적, 예술사적 기록인 고전을 갖지 못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는 지적이다. 콘크리트와 철골의 재료적 사이클이 지나치게 짧게 고정됨으로써 현대사회는 ‘불행한 사회, 고전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현대건축의 음영을 드러내는 임석재 교수의 지적에서 잠시 비껴나 보면 흥미로운 팩트가 눈길을 끈다.

최근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청계천 개통 50일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이 복원돼 물이 흐를 경우 이 지역의 기온이 인근 도심보다 3.6

도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청계천에 물을 통수시킨 후 측정된 결과, 물이 흐르는 지점과 도심 사이의 온도 차가 최대 9.6도까지 발생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고가도로를 철거한 이후의 청계천 온도가 종로 5가보다 0.1~3.7도 낮았다는 수치 역시 앞의 측정치를 신뢰케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003년 5월에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청계천 주변 온도가 다른 도심에 비해 0.8도 수준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됐었다. 물론 당시의 연구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결과치는 최근 물을 흘려보낸 이후 측정한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만으로 청계천 복원은 바람직한 것인가. 불행하게도 대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건축가 김진에는 《우리도시 예찬》(안그라픽스, 2003)에서 “청계천 3가에서 7가에 이르는 지역은 일종의 골목 복합 산업체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주변 상인에 대한 배려 없이 도심을 고층 빌딩으로 채우는 것은 복원이 아니라 개발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수 대신 인공하천을 만드는 것은 복원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건축가 임석재와 김진에의 주장은 오늘 눈앞에 현실화된 청계천의 모습 앞에 사실상 무기력한 주장이 되어버렸다. 10월에는 새로운 모습의 청계천이 완공되어 서울의 큰 상징물이 될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석재와 김진에의 주장이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또 다른 책 한 권을 펼친다. 어효선이 글을 쓰고 한영수가 사진을 찍은 《내가 자란 서울》(대원사, 2003)이다.

책제가 의미하듯이 이 책의 압권은 아날로그적 서울의 삶이 가득하다는 데 있다. 비 내리는 종로거리에서는 버선발로

● 이 글을 쓴 임동헌은

1985년 단편 〈묘약을 지으며〉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민통선 사람들〉 〈기억의 집〉 〈편지를 읽는 시간〉 등의 소설, 〈길에서 시와 소설을 만나다〉 〈가족식사〉 등의 산문집, 〈풍경〉 〈가족〉 〈아가에게〉 등의 사진에세이집을 냈다. 일간지 기사를 거쳐 〈출판저널〉 주간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로 있다. 최근 소설집 〈별〉을 냈다.



징검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보이고, 청계천 수표교 교각에는 물이 찰랑거린다. 중랑천변에는 빨래를 하기 위해 줄지어 걸어가 는 아낙들이 보이고, 냇가에는 햇볕에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옷가지들이 가득하다. 뚝섬 부근에는 미루나무 사잇길로 소달구지가 지나 간다. 양복 차림에도 버선을 신곤 했던 50년 전쯤의 풍경들이니 당시의 배고팠던 삶과 지금의 서울을 비교할 수는 없으나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의 사진 중 몇 점을 제외하고 콘크리트 건물을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란 서울》의 길은 흙이며, 집은 기와집이거나 초가집이며, 계단과 담은 대부분 돌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전이라는 점은 지금도 여전히 굳건하게 남아 있는 기와집들, 청계천 공사중에 출토된 유물들, 도심 곳곳의 돌계단들이 증명해 준다. 균열되거나 파손되지 않은 실제의 모습 그대로 수십 년을 흘러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고전의 모습인 것이며, 이 고전 건축물들이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을 증언하는 공간 상상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임석재 교수의 《현대건축과 뉴 휴머니즘》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소망하는 건축이란 사람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집을 뜻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임 교수는 “전국 곳곳을 답사해 보면 아름다운 농촌 한가운데에 여지없이 높은 아파트가 솟아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에 300여 가지의 김치가 존재했던 것처럼 집 또한 지역과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도 오직 아파트만 있고 집은 없다는 얘기다. 산이 깊은 경상도와 개방적인 전라도의 집은 자연환경과 지세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으니 임 교수의 지적에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임 교수는 이런 현상의 요인을 서울사람들과 똑같은 집에 살고 싶다는 획일화의 욕구에서 찾는다. 일반인들의 그런 욕구에 행정가와 건축가들이 부화뇌동함으로써 오늘날의 아파트 지상주의가 전개됐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일백 년 후면

지상에서 사라질 콘크리트의 집합체를 위해 말이다.

결론을 향해 가보자. 현대건축에 새로운 휴머니즘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왜 청계천의 열심 해소현상이 등장하는가. 우리는 아파트가 등장했을 때 그것이 전 국민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를 넘는 지금도 주택난은 가속화되고 있다. 아파트가 투기세력들에 의해 과점되어 평생의 봉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는 재개발이란 명목 아래 투기가 한층 거세진 요인도 있다. 즉, 콘크리트 건축물의 단점이 오히려 투기의 장을 불려왔다는 것이다. 20년, 30년도 안돼 거주 불안정 대상이 되고, 나아가 재화가 중복사용되면서 건축 고전이 될 기회는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쯤되면 문화적으로 안고 있는 아파트의 문제점은 콘크리트와 철골의 문제, 그리고 획일화와 투기대상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청계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계천의 대다수 옹벽은 콘크리트와 철골로 구성되어 있다. 새롭게 가설된 다리들 일부 역시 철골 구조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곧 인공하천으로나마 거듭난 청계천이 일백 년 후 대대적인 수리 혹은 해체 후 복원의 반복을 겪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화적 고전으로 자리매김돼야 할 청계천이 그런 과정을 반복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은 뉴 휴머니즘과는 꽤 거리감을 갖는 일이다.

너무 늦은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청계천은 아직 미완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보강 공사를 해야 완벽한 구조물이 될 수 있다. 청계천이 열심 현상을 약화시킨다는 장점에만 들떠 있기보다 21세기의 고전이 되기에 부적합한 콘크리트와 철골에 저항하는 일에 골몰해야 한다. ■